



데이터 통합 전문가와 함께 하는 1대1 상담회 DB가이드넷 퍼블릭 콘퍼런스 성황리 개최

글 김권식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연구원

한 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한국IBM, 한국어센설, 모코코와 공동으로 지난달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 관 대강당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차 'DBGuide.net Public Conference' 를 개최했다.

이번으로 13회를 맞는 퍼블릭 콘퍼런스는 'How To 데이터 통합'이라는 주제로 정보의 통합 효과 및 효율적인 통합 구현 방안을 비롯해 데이터 통합의 문제점·데이터 통합 품질관리·EAI 관점의 데이터 통합 방안이 발표됐다.

한국IBM 장운정 차장은 "기존의 데이터 통합 방식(Consolidation 방식)은 구조화된 형태의 데이터 집중 저장소 운영으로 데이터 연산 및 분석 작업은 높은 성능을 보장하지만, 현재 기업에 요구되는 실시간 기업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위치에 저장된 복합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동적인 데이터 조인을 활용한 연합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합을 위한 핵심 아키텍처로 데이터 투명성·이기종 데이터 소스 호환성·확장성·자율성 보장·성능 향상을 위한 기능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센설 김장원 이사는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의 75%는 지체되거나 실패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통합을 위한 효율적 데이터 적재 방안으로 레거시 시스템 전체 적재 방안과 더불어 점증적 데이터 적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점증적 데이터 적재 방안은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과 제조

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센설 허태경 이사는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의 실패 또는 지연 원인으로 소스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문서의 비정확성·자원의 부족·데이터분석의 수작업·프로젝트 참여 인원의 능력 부족 등"이라고 밝혔다.

모코코 오이식 이사는 "일반적인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EAI)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숙도에 따른 통합전략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통합전략·데이터베이스 통합 전략·애플리케이션 혼합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 프로세스 전략 등 4가지 전략의 교차 지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는 사전 설문을 통해 선정한 고객의 소리를 직접 콘퍼런스의 발표 주제로 선정해 전문가가 답변을 해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의 호응을 이끌 수 있었다.

아울러 콘퍼런스와 동시에 진행된 데이터 통합 전문가와 함께하는 1대 1 상담회에서는 한국IBM, 한국어센설, 모코코 등이 상담부스에 전문가를 배치해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전해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콘퍼런스의 강연 자료는 8월말에 DBGuide.net 홈페이지(<http://www.dbguide.net>)에 게시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콘퍼런스의 동영상 콘텐츠도 상기 URL에 동시 게시해 제공할 예정이다. ●